

마음 다잡고 '7일 작전' 시작... 퇴소 고3생 기숙사 다시 입소

사상 초유 수능 연기... 광주·전남 학교 가보니

평정심 잃지 않게 학생 다독이고 평소처럼 수업 진학교사 중심 별도 학습지도 방법 마련 등 고심

“대입 수능 D-7. 애들아, 다시 수능 일주일 전이라 생각하고 막바지 힘을 내보자...”

16일 오전 10시30분께 화순군 화순읍 화순고 3학년2반 교실에서 임말란 교사가 학생들을 다독이고 있었다.

이 교사의 말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23일로 연기되면서 학생들이 자칫 평정심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교실 분위기는 우려와 달리 대체로 차분했다. 교실 칠판에는 '7일 작전 시작'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달력엔 '23일'이라는 숫자에 D-day 표시가 눈에 띈다.

어왔다.

상당수 학생은 전남 수능 연기 발표 이후 새로 짠 수능 준비 일정표대로 자신의 공부를 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나도현(18)양은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면서 “포항 지역의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안전을 위해 수능을 연기해 시험을 보는 것이 긍정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수능 연기 소식에 당혹해 하면서도 겉으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허탈감에 빠진 학생들에게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이날 정상 등교했다.

학생들은 평소처럼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해당 교사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수업을 이어갔다.

이 교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지만 연기가 아니라 다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갔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을 등교시켰다”며 “학생들이 다음주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10분 광주시 광산구 송덕고. 이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휴교에 들어간 이 학교는 전남 퇴소 고3 기숙사생들을 학교로 다시 불러들였다. 수험생들은 이날 진학부장 지도 아래 향후 수능 준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교내 창고에 쌓아둔 수능 교재도 다시 수업에 각 교실로 돌려보냈다. 교사나 학생들 모두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

능 일주일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송덕고 장광재 교사는 “허탈감에 빠진 학생들도 일부 있는데, 수능 일주일 전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갔다고 생각하자고 독려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향후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68개교)·전남(143개교) 등 211개 고교는 17일부터 연기된 수능 일정에 따라 정식 수업에 들어간다.

수업 방식도 기존 수능 일주일 전처럼 수능 교재뿐이 중심의 자율학습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각 고교는 진학교사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학습지도 방법을 마련,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학교 기숙사생들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소수가 결정될 방침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학교 나와 자율학습 해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16일 화순군 화순고 3학년2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평정심을 찾고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생리 주기조절 해 놔는데” 허탈...문의 빗발에 학원 무료 개방

수능 연기 이모저모

고통 참았던 치과 진료 또 미뤄
서울 교통·숙박 예약 학부모들
취소 수수료·환불 문제 분통도

“1년간 참았던 치료를 또 미뤄야해요”, “16일에 맞춰 생리를 늦추는 약까지 먹었는데 약을 또 먹어도 될까요?”

사상 초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며 공부 이외에도 학생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조대부고 3학년 송모군은 1년간 참았던 사랑니 통증을 당분간 더 참아야될 상황이다. 학생기록부에 기록될 출혈 상황을 염려한 송군은 올 초부터 치아가 아팠음에도 치과 진료를 미룬 채 수능을 준비했다.

송군은 수능 직후인 이번 달 18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예약했다. 수능 때문에 예약을 연기하겠다고 병원에 알리자 일정이 딱 차 내년 4월에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내년 4월이면 대학 신입생이 될 송군은 그동안 꿈꿔왔던 캠퍼스 생활을 위해 여름방학까지 진료를 미룰 생각도 하고 있다.

평소 생리통이 심했던 박모양(동아여고 3년)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약(피인약)을 복용했다. 수능 일주일 연기 소식을 들었을 때 공부도 돌래치고 생리가 가장 걱정된 이유다. ‘혹시 수능날 때 생리통이 생겨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어찌나’ 하는 우려가 앞섰다. 박양은 부모들과 함께 병원에 들러 통증을 완화해주는 약을 처방 받을 계획이지만 컨디션 조절 걱정에 발잡을 설치고 있다.

15일 전후로 한산해졌던 광주지역 독서실에 다시 수험생이 몰리는 가운데 광주 대성학원은 학원생들에게 아예 자율학습

실을 무료로 개방했다. 16일 오전부터 이 학원 사무실에 ‘학원 문을 여나’는 문의 전화가 수십통 빗발쳤기 때문이다. 학원 관계자는 “수업을 진행할 순 없지만 공부 공간은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의 면접·고사도 미뤄지며 사전에 교통편과 숙박 예약을 한 일부 학부모는 취소 수수료와 환불 문제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번 주말 자녀와 상경할 예정이던 최모(50)씨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능 연기 사태에도 약관만 따져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취소 수수료도 걱정이지만 다시 예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갑갑하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우리만 왜” 1999년생들 수난사

신종플루·세월호·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에 수학여행 못가
찾은 교육과정 개정 피해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상 처음 미뤄지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1999년생’들은 누구보다 ‘다사다난’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됐다.

이들 사이에서는 “학창시절 결정적인 시기마다 국가적 재난이 반복된 탓에 우리 중에는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본 친구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새천년을 한 해 앞두고 태어난 1999년생들은 약 61만4000여명이다. 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9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신종플루가 퍼져 확진 환자가 최대 4만9500여명(2010년 11월 10일)에 달하기도 했다. 수학여행이나 운동회 등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1999년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이 때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됐다. 이듬해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이 유행했다.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환자는 186명까지 급증했고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온 사회가 공포에 빠졌고 2000곳이 넘는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1999년생들에게는 올해 수능 연기가 가장 큰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이 24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고 없이 미뤄지면서 모든 대학입시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수능은 2010년 신종플루가 확산했을 때도 예정된 날짜에 진행됐다.

1999년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초등학교 6년 내내 사회수업 시간에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1~5학년 때는 6학년이 되면 역사를 배우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됐고, 정작 6학년이 되자 5학년에 역사수업을 두는 ‘2007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EBS 수험생 위해 22일까지 비상 편성

요약 강의 등 새롭게 제작

EBS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비상 편성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능강의 사이트 EBS와 수능전문채널 EBS플러스1에서는 일주일 동안 수험생들의 집중학습을 위한 요약 강의 등을 새롭게 제작해 방송한다.

EBS TV가 오후 7시30분 방송하는 ‘EBS 뉴스’는 10분 확대해 수능과 관련

한 정보를 제공하고, EBS FM이 오후 5시 방송하는 ‘행복한 교육세상’은 학부모와 수험생을 위로하고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EBS는 “수능연기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반을 가동하고 오늘부터 수능 전날인 22일까지 일주일간 수험생을 위한 격려 영상을 수시로 방송하고,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판 소리 시끄럽다” PC방서 10대에게 ‘헤드락’ 40대



○...PC방에서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옆자리에 있던 10대에게 일명 ‘헤드락’을 건 4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경찰서행.

○...1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박모(46)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소재 PC방에서 옆 자리에 앉은 이모(19)군에게 컴퓨터

자판 소음문제를 훈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조르고 뺨까지 때렸다는 것.

○...박씨는 경찰서에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군이 컴퓨터 자판을 세계 두드려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말대꾸를 해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